**2016년 2학기 출판편집기술론 4강**

**교정교열 실습지**

날짜 : 2016년 9월 26일(월)

\*아래 문장을 읽고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나 띄어쓰기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고치세요.

1. 기억력이 좋던 애인데 가끔 가다 깜빡할 때가 있다.

-> 기억력이 좋던 애인데 **가끔가다** 깜빡할 때가 있다.

가끔가다 / 가끔가다가(0) : 붙여 쓴다.

2. 보기좋은 옷을 입혀 꾸며놓으니 정말 그럴 듯하구나.

-> **보기 좋은** 옷을 입혀 **꾸며 놓으니** 정말 **그럴듯하구나.**

그럴듯하다(0) : 형용사. 붙여 쓴다. ‘듯하다’’듯 하다’의 다른 용례들과 다르므로 외울 것.

3. 수 많은 재산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.

-> **수많은** 재산이 마음의 평안을 **가져다주지는** 않을 것이다.

수많다 : 형용사. 가져다주다(0) / 갖다 주다(0)

4.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구먼 그래.

-> 얼굴이 더 좋아 **보이는구먼그래.**

‘-그래’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는 붙여 쓴다. 서술어로서 ‘그러하다’의 의미를 갖는 ‘-그래’의 경우는 띄어 쓴다. <예> 왜 그러니?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.

5. 그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걸 느낀 순간,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이 눈앞을 스쳐갔다.

-> 틀린 데 없음.

그사이, 그동안(0)

6. 오늘 할 일은 다되었니? 밥시간 다되었으니 들어가자.

-> 오늘 할 일은 다되었니? 밥시간 **다 되었으니** 들어가자.

다되다 : ‘다 닳다, 끝장나다, 다 없어지다’의 의미. 그 의미가 아닌 경우는 띄어 쓴다.

7. 어제와 다름없는 하루이지만 유독 긴장한 까닭은 다름아니라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이다.

-> 어제와 다름없는 하루이지만 유독 긴장한 까닭은 **다름 아니라**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이다.

다름없는, 다름없이(0) / 다름 아니라(0)

8. 형제라곤 단 둘뿐인데 둘다 선생님이다.

-> 형제라곤 **단둘**뿐인데 **둘 다** 선생님이다.

9.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던 때였다. “제가 도와드릴까요?”

->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던 때였다. “제가 **도와 드릴까요**?”

도와주다, 넘겨주다, 돌려주다(0) / 도와 드리다, 넘겨 드리다, 돌려 드리다(0)

10. 네 부탁을 들어 주기 전에 네 가방부터 들어 줘야겠구나.

-> 네 부탁을 **들어주기** 전에 네 가방부터 들어 줘야겠구나.

(부탁, 요청을) 들어주다(0) / (물건, 말을) 들어 주다(0)

11. 사람들은 명수를 덜떨어진 구제불능으로 여겼다.

-> 사람들은 명수를 덜떨어진 **구제 불능**으로 여겼다.

덜떨어지다(0) / 구제 불능(0)

12.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거나 그의 방식을 따라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.

->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거나 그의 방식을 **따라 하면서** 살고 싶진 않다.

따라가다, 따라 하다(0)

13. 그렇게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네 형이 하는 대로 해 보렴.

-> 그렇게 **되는대로** 하지 말고 네 형이 하는 대로 해 보렴.

되는대로 : 부사. 보통의 ‘대로’는 띄어쓰지만, ‘되는대로’는 붙여 쓰는 부사이다.

14. 채연과 마주 앉은 백 선생님은 새로운 운명을 마주 하게 되었다.

-> 채연과 마주 앉은 백 선생님은 새로운 운명을 **마주하**게 되었다.

마주 앉다, 마주 잡다, 마주 보다(0) / 마주하다(0)

15. 그는 다른 사람의 일은 상관않고 자기 배 속을 채울 생각만 했다.

-> 그는 다른 사람의 일은 **상관 않고** 자기 **뱃속**을 채울 생각만 했다.

뱃속 : 마음을 속되게 이를 때만 쓰는 표현. 이 외의 상황에서는 ‘배 속’이라고 쓴다.

16. 너밖에도 지원자는 많으니 네가 열심히 할밖에는 방법이 없구나.

-> **너 밖**에도 지원자는 많으니 네가 열심히 할밖에는 방법이 없구나.

대문 밖, 상상 밖(0) / -할 수밖에, -ㄹ밖에(0)

17. 숨 쉬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 쉬는 방법이다.

-> **숨쉬기**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 쉬는 방법이다

숨쉬기(0) / 숨 쉬다(0)

18. 뿌연 안개 속으로 들어간 우성은 이번 살인 사건의 진실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음이 떠올랐다.

-> 틀린 데 없음.

안갯속 :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19. 놀이터에는 남자 애, 여자 애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이 많았다.

-> 놀이터에는 **남자애, 여자애** 할 것 없이 **어린아이**들이 많았다.

20. 오다가다 만난 아이라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알은척을 할까 말까 마음이 왔다갔다했다.

-> 오다가다 만난 아이라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알은척을 할까 말까 마음이 **왔다 갔다 했다**

오며가며(x) / 오며 가며(0) / 오다가다, 오락가락하다, 왔다 갔다 하다, 오라 가라 하다(0)

21. 그만한 일 가지고 울고불고하면 어떻게 하니?

-> 틀린 데 없음.

울고불고하다, 울며불며하다(0)

22. 친구와 한 일대일 농구 시합은 득점이 일대일인 상태에서 중단되었다.

-> 친구와 한 일대일 농구 시합은 득점이 **일 대 일**인 상태에서 중단되었다.

일대일 :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상대한다는 의미일 때는 붙여 쓴다. 점수를 나타낼 때는 띄어 쓴다.

23. 착한 사람 치고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그만 내 잘못으로 치고 끝내자.

-> 착한 **사람치고**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그만 내 잘못으로 치고 끝내자.

치고 : 조사로 쓰일 경우, 붙여 쓴다.

‘치다’가 ‘인정하다, 가정하다’의 의미로 쓰인 동사일 때는 띄어 쓴다.

24. 정석이 까탈스럽게 굴자 효진이 안절부절하기 시작했다.

-> 정석이 **까다롭게** 굴자 효진이 **안절부절못하기** 시작했다.

25. 차 형사는 용의자가 친구로서 한 말을 살인 사건의 증거로써 이용해 버렸다.

-> 틀린 데 없음.

로서 : 지위, 신분, 지체를 나타내는 조사 / 로써 : 수단, 도구, 원료를 나타내는 조사